

목조 석가여래상 및 양 협시상

다이코도(大講堂)의 본존은 석가삼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가운데의 상은 석가모니불입니다. 석가모니불은 앉아서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명상하며 손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인상(印相)을 맺고 있습니다. 불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좁고 긴 컷불, 정수리 부분의 육계(숫아오른 부분) 및 나발(소라 모양의 머리카락)은 자비, 지혜 및 깨달음을 표현하는 형상입니다. 석가모니불이 앉아 있는, 연꽃을 본뜬 대좌(수미단)는 불교 우주론의 물리적 및 형이상학적 중심에 위치하는 성스러운 산인 수미산을 상징합니다.

석가모니불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나타내는 인상을 맺고 있는 보살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정신적인 통찰력을 갖춘 문수보살이, 왼쪽에는 진리와 수행의 덕의 신인 보현보살이 서 있으며, 나아가 수미단의 네 모퉁이에 사천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. 각 상의 뒤에 놓인 금빛의 광배에서 나오는 빛살은 성스러운 힘이 사방으로 뻗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삼존상은 그 높은 위치에서 매년 수 차례 무악이 봉납되는 조교도(常行堂)의 무대를 중정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다이코도와 주교도가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배치에서 지키도(食堂)를 포함한 미쓰노도(三之堂)가 구성을 깊이 검토하고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석가삼존상은 986년경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의 제자였던 간나 대사가 만들었습니다. 각 조각상은 한 그룹의 노송나무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각되었으며, 옷칠과 금박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다이코도와 삼존상 및 사천왕상은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.